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정원도시 모습 하나씩 갖춰져

열섬현상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전주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생활의 다양성이 복원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모습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

1호 시민나무 수목은 전주시 시목이자 천년이 가도 썩지 않는 은행나무로, 전주종합경기장 입구 주차장 원형 공간에 심어졌다. 이후,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의 시민

진회(200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500만원) △전주시 민간어린아동지원회(100만원) △전주알하는실버클럽(150만원) △슈티에스케이위터(100만원) 등이 참여했다.

한 성금을 전주시에 전달하며 시민 참여 확산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우리마을 어울림 정원'을 통해 주민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우리 동네 정원을 만들고 가꾸며 생태의 회복력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우리마을 어울림 정원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정원을 함께 만들고 가꾸며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시생태계를 복원해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소통의 정원' 등 6개소에 어울림 정원을 조성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각 마을별 이야기가 담긴 이색적인 126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유치원 원아들 첫 시민나무 심은 것 부터 시작

시민나무 헌수 동참자 증가·단체 등 후원 모여

마을단위들도 동참 '우리마을 어울림 정원' 조성

먼저, 시는 지난해 유치원 원아 1000명이 1000원씩 모은 저금통을 기부 받아 첫 시민나무를 식재 하면서 천만그루 정원도시 시민헌수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나무 헌수를 위한 성금 300만원을 비롯, △오성현 내일산업 대표(노티나무 1000그루) △허상록 (주영천 대표(노티나무 1000그루) △장재자 (유)동서산업 대표(소나무 1000그루) △덕

또한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에 마을단위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완산구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덕진구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헌수를 위



6·25전쟁 참전 용사 아들에 훈장 석종건 육군 35사단장(왼쪽)이 3일 한국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고 황인석 용의 아들 황삼배씨에게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육군 35사단 제공)

'태양광 비리' 차명분양 뇌물수수 전 한전 간부 '실형'

재판부, 전 고창지사장에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선고 등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유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직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고창지사장 A모(62)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장차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북본부 직원 B모(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모(66)씨에게 징역 8월에 징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용 등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임직원들은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전력연계 기술검토, 인입공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대가로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 공사대금을 적게 책정해 할인 받는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D업체가 건설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등 기술검토 과정에서 전력계통에 연계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처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시공비 등 총 2135만 원을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대한 정보 주는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8대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그 과정에서 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한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개인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친인척 명목까지 빌려 태양광발전소 분양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할인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인식 전환 특강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일 센터 강당에서 취업에 희망하는 전주지역 여성 13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인식전환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경숙 글로벌리더 코칭센터 대표가 '행복한 삶을 위한 워라밸 코칭'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원장은 특강에서 "행복한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워라밸! 마음이 합니까 등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며 걸어온 경력단절로 인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는 등 취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사회재진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찾고 자기개발에 힘써 각자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출발' 전주시는 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식을 가졌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나는 전주시민입니다'

시, 7일 시민의 날·꽃심 선포 3주년 기념행사

전주시민의 축제의 장인 '제61회 전주시민의 날 및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3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단오날인 7일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66만 전주 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전주시민의 날'과 전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립한 전주정신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3주년' 행사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을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전주를 새로운

미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행사를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등 주요내빈과 전주지역 기관·단체장, 전주정신 다올마당 위원, 전주정신 강사와 일반시민 등 각계 각층에서 참여해 다 함께 전주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전주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주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 △각계각층 시민들의 축하영상 △여울초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댄스공연단의 '꽃심 전주' 공연 △전문방송인과 국악인이 함께하는 전주정신 선언문 낭독 △전주시

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전주 시민의 날(6명) 및 모범 시민상(5명) 시상식 등이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효열장 이상희 씨(53, 여) △교육국장 김운경 씨(60, 여) △문화장 강정열 씨(68, 남) △노동산업장 양균 씨(67, 남) △공익장 소순강 씨(78, 남) △체육장 이병하 씨(68, 남) 6명이 올해의 전주 시민의 장을 수상하게 되며, 유경수 씨(동서학동) 등 5명이 모범시민상을 받게 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시민이 주인공인 전주 시민의 날에 전주가 가장 전주다운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현충일 기념 호국원 참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3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국립묘지순국유공자를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묘역 관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김장근 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25여명은 현충탑 참배 후 비석 닦기, 잡초 제거 등 묘역관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2019년도 신규 입사 직원 15명은 임용장 교부식을 마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더했다.

신규직원 김여진 계장은 "농협은행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소중한 자리에 순국선열의 경건한 뜻을 계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촌 빈집털이 시도 20대

집주인 딸에게 '덜미'

농촌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20대가 낯잡을 자던 집주인 딸에게 걸려 도주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A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55분경 익산시내 모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품을 훔치려다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 B모(47)씨 딸에게 적발돼 황급히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하루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중이다. /강석훈 기자

버스서 지갑 훔친 60대 검거

버스에서 지갑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시외버스에서 B모(52)씨가 떨어뜨린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5만원 등 총 4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독서대전, 볼거리 '풍성'

시, 참여 출판사·서점·체험부스 운영단체 각각 20곳씩 모집

전주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2019 전주독서대전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만든다.

시는 2019 전주독서대전을 풍성하게 만들며 출판사·서점 및 독서 체험 참가 단체를 각각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책 읽는 도시를 쓰는 전주'라는 슬로건과 '당신을 쓰세요'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주 한벽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이번 전주독서대전에서 독서 체험부스 20개 단체와 출판사·서점 부스 20개사를 모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북 마켓에서는 전주지역 동네 책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책들과 지역의 서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각 출판사의 참신한 책들을 접할 수 있어 그동안 책 읽기를 미뤘던 시민들을 다양한 책 세상으로 안내한다.

시는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출판사·서점의 판매 시간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가을밤 책 읽기 좋은 독서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며 책방 지기와 출판사 지기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2019 전주독서대전 부스 운영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eonju.go.kr) 또는 2019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jbook.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주시립 완산도서관(063-230-181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